

UIA 포럼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UIA 2010 ASA International Forum Bangkok, Thailand 참관기

금번 UIA Forum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극렬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인 태국건축사협회(ASA)는 급히 회의 장소를 옮겼고 변경된 장소인 태국 방콕 라마가든 호텔과 Impact Arena Exhibition Hall은 시내 중심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외신에서 보도하는 극한 대결의 볼거리와는 거리가 있었

다. 그러나 몇몇 주요 연사가 불참하는 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주최측의 해외인사를 위한 철저한 보안에 의해 계획된 회의는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최영집 회장, 김지덕,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협회 대표단은 UIA 포럼 2010 개막일(2010.4.28) 하루 전인 4월 27일 12시에 태국 건축사협회(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ASA) Thaweejit Chandrasakha 회장, Sathinut Tandanand 부회장, Chalay Kunawong 교육전문부회장과 방콕 라마가든 호텔 내의 Zhang Restaurant에서 상호교류관련 회의를 가졌다.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1)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 유지, 2) 상호 건축 정보의 교환 3) 연례 상호 방문을 통한 관계 개선, 4) 교육 제도의 국제 기준 공유, 5) 건축사 상호 자격 인정을 위한 기초 작업, 6) APEC 건축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었으며, 일본건축가협회(JIA)와 태국건축사협회(ASA)가 갖고 있는 국제적 협력 관계를 본 협회와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MOU를 체결하



UIA 국제포럼에서 기념선물 교환 중인 양 단체 회장원폭부터 ASA 부회장 Sathinut Tandanand, 본 협회 회장 최영집, ASA 회장 Thaweejit Chandrasakha, 본 협회 국제자문위원 이근창, ASA 교육전문부회장 Chalay Kunawong, 본 협회 국제자문위원 김지덕

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자국 내 건축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건축 교육, 건축사 계속교육, 개업 건축사 훈련 등 건축설계분야의 폭넓은 협조를 이뤄가기로 협의하였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범용하고 있는 UIA Accord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 ARCASIA와 UIA 제4지역협력을 비롯한 APEC 관련 국제 조직에서의 공조 등도 동시에 논의되었다.

4월 28일(수)에는 UIA Forum 2010이 Impact Exhibition Hall에서 개최되었으며 Billie Tsien이 발표했는데 Yale 대학, Harvard 대학, Texas 대학, Pennsylvania 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한 Billie Tsien 건축사의 현대감각에 합당한 작품들의 발표에 방청객의 찬사가 있었으며, 방청객의 관전평이 대단히 호화로웠다. Billie Tsien 건축사의 작품세계에 상당한 의욕적인 장래가 보였다. 그러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강의를 거절한 Netherlands의 Wiel Arets와 중국의 Zhang Ke의 불참은 Forum의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민석 씨가 4월 29일(목) 아침 10시부터 아주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발표 작품으로는 북경 EXPO 한국관, Pixel House, Dalki Theme park, Boutique Monaco, Xi gallery, Mue shop, Bitform gallery Seoul 등 그동안 작업했던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 다양한 작품 50여점을 설명과 함께 준비한 영상과 발표로 아주 멋진 Forum을 진행하여 참석한 세계건축사연맹뿐 아니라 태국의 참가 건축사에게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건축사의 왕성한 활동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태국 건축사 Amata Lumphai, 인도 건축사 Bijoy Jaun, John Ding, Malyzlei, 태국 건축사 Twitee Vajrabhaya Tepakum, 호주 건축사 Kerstin Thompson의 꿈 많은 작품들을 컴퓨터 작업으로 설명하여 많은 현지 건축사들의 찬

사를 받았다.

최종 연사로 선정된 일본의 건축사 Riken Yamamoto 씨 역시 초청을 수락한 후 정국 불안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4월 30일(금)에는 오후 Bijoy Jain씨의 강연으로 Forum을 계획된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마쳤다. 인도의 Bijoy Jain의 강연은 그의 독특한 건축사로서의 행위가 청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건축주와의 만남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설계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감리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 통제하여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생활 문화에 적합한 건축물이 창조되었다. 이를 위한 재료선정, 공법선정, 인력 활용 등 지역의 인문학적 요소를 감안한 건축사의 배려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Forum과 병행하여 4지역 이사를 포함한 UIA 임원회의와 ARCASIA 대표단 회합이 있었다. ARCASIA 대표자회의에서는 다가오는 ACA-14 총회 개최와 관련된 파키스탄의 보고가 있었다. 전 이사회에서 야기되었던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정국의 불안에 따른 내부 조치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회장단의 현장 사전조사 내용들이 설명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건축사협회(IAP)에서는 각 행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Student Jamboree와 관련된 인원수 조정, 장소의 보안상태 점검 등이 주안점으로 강조되었다.

다음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시내 관광을 끝으로, 늦은 시간에 귀국길에 오르며 5박 6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김지덕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 마이애미 총회 참관기(2010 AIA Convention, Miami)

이번 2010년 미국건축사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총회는 6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이 FIKA의 대표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이창섭 부회장, 류춘수 전 부회장, 신춘규 이사, 김성민 국제위원장, 그리고 국제위원회의 김지덕, 이영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가협회에서는 이상림 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의 대표단 및 참관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가협회의 이상림 회장이 Hon.AIA(미국건축사명예회원)를 수여받고, 김정식 건축사가 Hon.FAIA(미국건축사특별명예회원)를 수여받았다.

2010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미국건축사협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총회는 크게 3가지의 행사로 구분된다. AIA 골드메달 수여식 등의 각종 수여식과 기초연설을 주로 하는 일반 강연(General Session)과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자재전시(EXPO) 3가지이며, 이 3가지 주 행사를 중심으로 각 종 지역건축사회 및 동문회 등 다양한 저녁 행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3일 동안 건축사들의 축제분위기로 들뜨게 만든다.

이번 총회는 '다음 10년을 위한 설계: Design for the New Decade' 라는 주제를 갖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많은 건축사 회원들과 관계사들이 참석하여 총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준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서술적인 방법으로 총회의 참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미국 총회의 참관기를 쓰려고 한다.